(사) 좋은벗들

We'll be Goodfriends with All Beings

세상의 누구와도 좋은벗이 되겠습니다

글 싣는 순서

특별 기획

제 17차 통일 축전 (온라인) / 출처 : 정토회 '법륜스님의 하루' 4

좋은이웃되기 - 가정 방문

재원이 엄마, 다음엔 꼭 장기자랑 참가해 봐요 | 강종윤 18
시흥의 좋은 이웃들 이야기 | 이정원 20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갑니다 | 김효심 22
주아, 주원이 건강하게 잘 지내길 | 신지오 23

산모/영유아 지원

유경이네가 점점 안정되고 있어요 | 박지예 24
한민이네와의 인연 맺기 | 이승우 25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습니다 | 신미순 26
돌치레를 겪으며 쑥쑥 크는 수영이 | 이정원 28
좋은이웃 분유전달 및 추석 선물 전달 | 임철순 29
우성이와 우주의 백일 | 윤미란 30

2020 11·12 통권 128호

펴낸날 2020년 11월 30일 | **만든이** 김기연, 손재희, 이승용, 이영미
펴낸곳 좋은벗들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 3동 1585-16 **Tel** 02- 587 -8754
후원문의 02-587-8996 | **Fax** 02-581-4077(좋은벗들)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사)좋은벗들은 다툼이 없는 삶을, 남과 북이 서로 이해하고 좋은이웃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기를, 또한 모든 생명이 한 데 어울려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특별 활동 - 좋은이웃되기 학교 / 추석 방문

인천 좋은이웃되기 학교 | 김종호 31
노원지역 좋은이웃 추석 명절 방문 | 유미화 34
온라인 통일 축전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 김영숙 35
광명 좋은이웃 추석 방문 | 서태원 36
통일축전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 최미금 37
시흥 좋은이웃 추석 선물 전달 | 이정원 38

통일 정진

덕양지역 온라인 통일 정진 | 고영훈 40
안산지역 온라인 통일 정진 | 조동열 42
사천왕사지 통일정진 후기 | 서영주 44

후원해 주신 분들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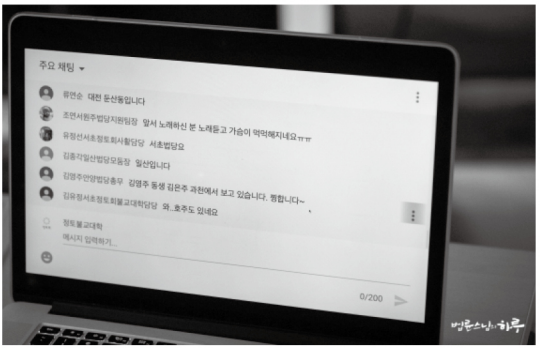
www.goodfriends.or.kr

제 17차 통일 축전
(온라인)

*** 출처 : 정토회 홈페이지 '스님의 하루'**

10월 11일, 좋은이웃을 위한 통일축전이 좋은벗들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처음 열리는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래 통일축전은 추석 명절 때 고향에 다녀오지 못한 좋은이웃들이 한자리에 모여 차례도 함께 지내고, 도시락도 같이 먹고, 운동장에서 같이 뛰고 즐기고, 노래자랑도 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이 역시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후 3시 정각에 생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17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좋은벗들 소개 영상을 시청한 후 해마다 지내 온 합동 차례도 영상으로 함께 시청했습니다. 좋은벗들 활동가들이 지난 11일 임진각을 찾아 합동 차례를 지내고 온 모습이었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임진각이 희망의 장소가 되길 기대하며 온라인 통일축전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자의 제안에 각자 어디에서 생방송을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창에 올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창원, 진주 등 전국 방방곡곡에서 400여 명의 좋은이웃들이 생방송에 접속했습니다.

먼저 즐거운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온라인 통일축전이 열린다는 공지가 나간 후 전국에서 8명이 노래와 춤을 녹화해서 보내왔습니다. 좋은벗들 사무국장을 지낸 노옥재 님을 비롯해 심사위원 두 명을 소개한 후 곧바로 장기자랑을 시작했습니다.

천안에서는 신나는 하모니카를 연주하고, 해운대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홀로아리랑을 불렀고, 아산에서는 분위기 있는 색소폰을 연주했습니다.

분위기가 한층 밝아진 가운데 스님을 모시고 즉문즉설을 시작했습니다. 즉문즉설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장기자랑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스님은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예전처럼 운동장에 다 같이 모이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평년 같으면 운동장에 다 같이 모여서 직접 노래도 부르고, 운동회도 하고, 참 좋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

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도 닭 대신 꿩이라고 하잖아요. 현장에서 못하면 온라인으로라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이어서 3명의 질문자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스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남한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게 너무 힘들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남한 사람들의 차별과 무시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대한민국에 정착할 때는 정부와 국민에게 참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좋은이웃들의 정착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한에 넘어와 9년 동안 생활하면서 차별과 무시를 많이 받았고, 그게 저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처를 받은 좋은이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처음 가졌던 고마운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식어간다는 건 참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에 대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스님은 먼저 합장을 하고 공손히 사과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질문한 좋은 이웃의 얼굴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다른 나라에 가면 피부 빛깔이 다르다고 차별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 남성 중심의 사회에 가면 여자라고 차별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한국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민족이 다르다고 차별을 받습니다. 일본에 가면 '조센징이다'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중국에 가면 '조선족이다'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가면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다.

그러면 같은 민족끼리는 서로 차별을 안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양반들이 같은 조선 사람인데 계급이 낮다는 이유로 쌍놈이라고 차별을 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안에서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에 와서

살면 좀 차별을 받습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에 가서 살아도 좀 차별을 받고요. 또 남한 출신 중에 북한에 가 있는 사람 중에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남한 출신의 국군포로들은 북조선에서 얼마나 차별을 많이 받습니까? 또 공산주의가 좋아서 남한에서 월북해서 북한 정부의 고위 관리가 되었지만 남한에서 보낸 간첩이라는 의심을 받아서 결국 정치적인 숙청을 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자기가 사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해 가면 차별을 조금씩 받기 마련입니다. 외국에 가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국내에서는 지역적으로 차별을 조금씩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일부러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특이하면 그 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성분들이 시골 동네에서 낳은 아이들까지도 조금씩 차별을 받거든요. 혼혈이라고 차별받고, 말을 잘 못한다고 차별받습니다. 이것은 어디든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존재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사라는 거죠.

그것처럼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반드시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에 사는 조선족들 중에는 남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도 역시 차별을 받거든요. 지금 남한에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약 3만 5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조선족은 한 60만 명 정도 들어와 있어요. 조선족은 어디 가도 다 만날 수 있

을 정도입니다. 저는 조선족들을 위해서도 법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도 늘 차별을 받는다고 해요. 남한에 오면 수입은 괜찮지만 차별받는 게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런 차별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차별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사에서는 늘 존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만든다', '독재 정부다' 이렇게 늘 북한에 대해서는 안 좋은 이미지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그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대부분 북한 정부의 안 좋은 이미지이지만 북한 주민들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북한이라는 단어는 북한 국가, 북한 정부, 북한 주민이라는 이렇게 세 가지 서로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미지를 나쁘게 갖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하면 그 핑계를 북한에서 온 것으로 대는 겁니다. 마음에 들 때는 괜찮은데, 일을 잘 못할 때는 그렇게 핑계를 대고 말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조선족들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조국에 왔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여기 와서 살아보면 차별을 받게 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조선족 동포들이 중국에서 살 때는 한국과 중국이 축구 시합을 하면 누구를 응원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중국에서 살 때는 중국을 응원하고, 한국에 와서 살 때는 한국을 응원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 살 때는 전부 한국을 응원합니다.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차별을 받기 때문이에요. 내가 조선족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우려면 한국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살면 중국에서 왔다고 차별을 받거든요. 이 때는 중국이 잘 되는 게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사는 조선족들은 전부 중국을 응원해요. 이것이 인간사이고, 현실인 겁니다. (웃음)

차별을 합리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은 분명히 잘못됐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게 인간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주를 할 때는 그 정도의 차별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옮겨간 데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이걸 힘들어하면 그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외부에서만 보면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보여질 때가 많은데, 막상 살아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가서 살면 다 좋을 것 같지만, 막상 미국에서 살아보면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받고, 말이 서툴다고 차별받는 등 여러 가지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불편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다시 중국에 가서 살 수도 없는 일이고요. 남한에서 차별받는 것을 못 견뎌서 영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가는 분들이 있습

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돼요. 그래도 기분은 덜 나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서 살면 북한에서 왔거나 남한에서 왔거나 모두 똑같이 차별을 받거든요. 대등하게 차별을 받기 때문입니다. (웃음)

그런데 남한에서는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차별을 받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나 5천만 국민을 어떻게 다 깨우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별을 스스로 해소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를 무시하면 저도 같이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예의를 지키면 저도 예의를 지킵니다. 그게 제가 스트레스받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건 스트레스받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스트레스는 받았고,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인 거죠. 같이 무시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네요." (웃음)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간호사가 예의 없이 행동하면 저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갑니다.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받지 않고 계속 생활을 이어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이 좀 편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그러면 늘 쫓겨 다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병원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른 병원으로 가면 되죠."

"예, 병원이 많은 건 맞아요. 이 병원이 나를 무시하면 저 병원에 가면 되죠. 이 은행이 나를 무시하면 저 은행에 가면 됩니다. 이 가게가 나를 무시하면 저 가게에 가고, 이 식당이 나를 무시하면 저 식당에 가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저는 손해 입는 게 없고, 그 병원이 손해이니까요."
"그런데 다른 병원에 갔는데도 또 차별을 받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다른 데에 가죠."
"다른 데에 가서 또 그러면 어떡할래요?"
"또 다른 데로 가죠."

"불교 경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부처님이 어떤 나라에 갔는데 왕이 걸식을 하는 출가수행자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왕한테 배척을 당하니까 승가공동체의 전 성원이 끼니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자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부처님, 이 나라에서 우리를 배척하니까 다른 나라로 갑시다. 다른 나라로 가면 우리를 환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 갔는데 또 우리를 차별하면 어떡하니?'

'그러면 또 다른 나라로 가죠, 뭐.'
'아난다여, 그 나라에서 또 차별을 하면 어떡하겠니?'
'또 다른 나라로 가죠, 뭐.'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쫓겨 다니니?'

그제서야 아난다 존자도 수긍을 했습니다. 이 말은 좀 차별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자꾸 피해 다니지 말고 웃으면서 그냥 적응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네가 차별하니까 나는 옮겨간다, 이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차별할 때 이렇게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아. 남한 사람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잘 살기는 하는데, 의식 수준이 저렇게 낮아서야 어떡하나. 쯧쯧…. 불쌍하구나!'

이러면서 그냥 봐주세요."

"남한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맞아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차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주라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차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아, 언제 사람이 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봐 주세요."
"네, 스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다시 한번 남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남한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잘 받아도 이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네요. 남한 사람들이 아무리 경제적으로는 잘 산다고 해도 이런 의식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구나. 쯧쯧'

이러면서 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봐주는 마음으로 한 번 대응해 보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병원을 안 옮겨 다니면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또 옮겨 다녀도 괜찮아요. 내 돈 내서 내가 치료받는데, 차별받으면서까지 돈을 낼 필요는 없잖아요. 식당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은행이 한두 개도 아니고, 병원이 한두 개도 아니잖아요."

"저를 차별하는 상대방이 손해 보는 것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현명하십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자도 환하게 웃고, 스님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2명과 더 대화를 나눈 후 다시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생이 우아하게 가야금을 연주하고, 초등학생 어린이가 천태만상이라는 트로트를 신나게 불렀습니다. 작년 통일축전 노래자랑의 우승자가 나와 '잊힌 계절'이라는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르고, 한복을 입은 남자분이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노래를 신나는 춤사위와 함께 불렀습니다.

신명 나는 장기자랑 시간을 끝내고 다시 즉문즉설 2부 시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서면으로 5개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마치고 장기자랑 시상식을 했습니다. 올해 통일축전의 대상은 멋진 춤사위와 함께 '일소일소 일로일로'를 부른 분에게 돌아갔습니다.

스님도 큰 박수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장기자랑까지 끝마친 후 마지막으로 스님이 행사를 마치며 정리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통일 축전을 열고, 우리의 꿈인 통일을 기원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년에 대면이 가능해지면 다 같이 모여서 사찰 구경도 하고, 도시락도 같이 먹고, 현장에서 노래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누가 이기든 지든 아마 미국과 북한 사

이에 모종의 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면 좀 빨리 대화가 시작될 것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한 6개월 정도 지나야 대화가 시작될 겁니다. 미국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전 정부의 정책을 리뷰한 후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 북한 지도자도 코로나 문제만 끝나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말을 했으니까, 좋은이웃 여러분들이 고향에 갈 수 있는 날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이웃 여러분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과 전화도 하고, 고향에 송금도 할 수 있고, 또 직접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오기를 발원하면서 이번 통일 축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을 기원하며 ‘다시 만나요’ 노래를 부르며 방송을 마쳤습니다.

(사)좋은벗들은 남한에 정착하는 초기 새터민들에게 밥상과 그릇 등 첫 살림살이를 선물하고 가정을 방문하여 이웃으로서 정을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생활이 낯선 그들에게 병원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 및 시설들을 안내해주기도 하고 기쁜 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같이 나누고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작은 나눔들은 이후 다가올 통일사회에서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좋은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씨앗이 되어 미래의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재원이 엄마, 다음엔 꼭 장기자랑 참가해 봐요

강종윤 | 인천 송도 좋은벗들

10월 17일 방문을 갔더니, 재원이가 선잠을 깨서 그런지 시큰둥하며 맞아줬습니다.

재원이가 독감주사를 맞은 이야기, 기숙사 생활하는 큰 아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에 장남감이 자동차만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재원이가 장난감으로 자동차와 프라이팬 만을 좋아한다고 해서 신기했습니다.

재원 엄마는 지난 통일축전때 재원이가 핸드폰을 가지고 노는 바람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에서 가수 생활을 하셨다니 노래를 잘하실텐데, 다음 통일축전때는 꼭 참여하자고 서로 다짐을 했습니다.

재원이 어머니가 불면증이 있다고 하길래 함께 간 김숙경님이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달 한달 다니다보니, 벌써 반년을 방문했습니다. 아주 친한 친구나 친척은 아니어도 가까운 동생집에 온것처럼 편안합니다. 재원 엄마도 처음이나 지금 똑같이 밝게 맞아줍니다. 싫어하거나 귀찮아 하지 않아서 고맙습니다.

만날때마다 할말이 샘솟듯이 나옵니다. 좋은이웃되기는 꾸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임을 다시 되새깁니다.

시흥의 좋은 이웃들 이야기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시흥엔 새로 터전을 잡으신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흥 지역의 좋은이웃 봉사자들은 번갈아가면서 이웃들을 뵈러 가고 있습니다.

- **일시** : 11. 10 (화)
- **대상** : 조○○ 님
- **봉사** : 김병선, 김명임

11월 10일에는 조00님 댁에 방문해서 가슴 아픈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빨리 기반을 잡아 중국에 두고 온 딸을 데려오고싶은 심정 말씀하시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야기 들으니 조○○님의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로서 그 입장이 공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방문하고 이야기 듣고 오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 **일시** : 11. 19 (금)
- **대상** : 윤○ 님
- **봉사** : 신미순

윤○ 님은 작년12월에 첫방문하고 코로나로 전화안부만 묻고 있었는데, 오늘 두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남편분과 윤○님 모두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인인 남편 분은 작년에는 한국말을 못하여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한국말도 잘하고 오너와 관계도 좋아져 신나게 잘 다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14살 된 아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고 있고, 데리고 와도 적응을 잘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중국에 계신 시부모님, 북한에 계신 친정 부모님 또한 생활이 힘드셔서 윤0님이 많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마음이 안좋았습니다.

통일은 안되더라도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어 서로 왕래라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안고 방문을 마쳤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이웃이 되어갑니다

김효심 | 인천 송도 좋은벗들

같이 갈 봉사자를 찾기가 어렵고, 방문 봉사자가 자주 바뀌면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아 지난 10월 21일, 혼자 대명이 엄마를 만나고 왔습니다. 대명 엄마만 만나야 하니 특별한 물품 대신 같이 점심을 먹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대명이 엄마는 9달째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이들과 떨어져 있다보니, 오늘 유난히 아이들이 보고 싶어 아이들과 자주 갔던 분식집에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꺼내지 않았던 아이들과 떨어진 사연, 그리고 연락을 자주 할 수 없는 상황들에 대해 들려주셨는데. 듣고나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요즘 만나는 친구는 없느냐 하니 개똥벌레 노래 가사가 자기 처지 같다며 힘들어 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함께 해줄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만나지도 근 1년이 되어가니, 이제는 좋은 이웃으로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관계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준 좋은벗들이 참 고맙습니다.

점심을 먹고 공원으로 산책도 함께 하고 왔습니다.

주아, 주원이 건강하게 잘 지내길

신지오 | 인천 송도 좋은벗들

- **일시** : 9. 27 (일)
- **대상** : 주아, 주원이네
- **봉사** : 최은선, 신지오

코로나가 잠잠해질때까지 주아, 주원이네 가정방문을 미루기로 하였는데, 추석을 맞아 잠시 다녀왔습니다.

방문하였더니 역시 주원이는 낮잠자고 있었고 주아가 엄마랑 함께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주아어머니 좋은 벗들과 좋은인연에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코로나도 코로나고 바빠지셔서 방문을 그만 받으시겠다고 하셔서 방문 잘마치고 주아주원이가 건강하길 바라며 돌아왔습니다. 벌써 17개월정도 방문한 듯한데 정도 많이 들고 아쉬움이 남네요.

유경이네가 점점 안정되고 있어요

박지예 | 김포 좋은벗들

- **일시** : 10. 31 (토)
- **대상** : 유경이네
- **봉사** : 박지예

이번 달에 어느덧 유경이가 돌을 맞습니다. 다음주부터 유경이는 어린이집에 나가고, 엄마는 취업하신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입구에서 만나 잠시 얘기를 했지만 많이 반가워하시고 고마워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있고, 취업되면 연락 주시겠다고 하시니 차츰 안정되겠구나 싶어 다행스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민이네와의 인연 맺기

이승우 | 인천 좋은벗들

- **일시** : 11. 14 (토)
- **대상** : 한민이네
- **봉사** : 함혜영, 이승우

코로나로 인해 한민이네 분유지원은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함혜영 님이 분유지원 주문을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번 김장 나눔은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상황에 맞게 이번엔 건너뛰기로 했지만 내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봅니다.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모습을 보니 보람이 있습니다

신미순 | 시흥 좋은벗들

- **일시** : 10. 26 (월)
- **대상** : 박○○ 님
- **봉사** : 신미순

박○○님께서 10월 10일 건강한 남자 아기를 출산하셨습니다. 자연분만을 하고 싶었지만 나이가 있어 제왕절개분만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흘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입맛이 없어 식사를 잘 못한다고 합니다.

아기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문앞에 준비해 간 연시감을 놓고 전화 통화로 안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고맙다고 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전해줍니다. 건강한 아기와 엄마 사진을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 흐뭇하고 보람된 하루였습니다.

Rammi

BYC

돌치레를 겪으며 쑥쑥 크는 수영이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일시** : 11. 20 (금)
- **대상** : 백○○님댁
- **봉사** : 이정원, 신미순

백○○님의 첫째 딸 돌 잔치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돌 선물로 떡 케이크와 유아용품 몇가지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도착해보니 기존에 좋은벗들과 인연되신 박○○님과 이○○님도 함께 계셔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서로 가족처럼 아이도 봐주고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인 수영이가 전 날 저녁에 열이 나서 응급실을 다녀와 기운이 없어 좀 안타까웠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무척 놀랐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으니 딸아이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수영이가 쑥쑥 큰다고 돌치레를 하는구나 기특하게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준비해주신 떡과 손수 담그셨다는 김치도 잘 얻어먹고, 좋은이웃 분들끼리 정다운 모습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섰습니다.

좋은이웃 분유전달 및 추석선물전달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일시** : 10. 20 (화)
- **대상** : 하진이네
- **봉사** : 임철순, 이유정

코로나로 인해 오랜만에 하진이네 방문을 하였는데, 하진이가 벌써 자라서 걷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엄마의 편안한 얼굴을 보니 방문한 저희도 좋았습니다.

우성이와 우주의 백일

윤미란 | 구미 좋은벗들

- **일시** : 11. 21 (토)
- **대상** : 김**님 쌍둥이 (우성, 우주)
- **봉사** : 윤미란

쌍둥이 우주, 우성이의 백일 잔치가 지나서, 김**님이 코로나로 초대 못 해 죄송하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들의 분유 지원이 필요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주가 방긋 웃으며 반겨주니 마음이 사르륵 녹네요. 다음 주 김장 행사에 아이들 맡기고 참석하겠다고 하십니다.

인천 좋은이웃되기 학교

김종호 | 인천 좋은벗들

[1강]

- **일시** : 11. 12 (목)
- **대상** : 온라인
- **봉사** : 이윤정, 김윤정, 이승우, 김종호, 왕영재, 황명희, 김미현, 전신국, 최은숙 김숙경 김윤숙 (12명)

코로나 시대인지라 이제는 교육도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다. 인천 지역의 좋은벗들 활동가들과 좋은이웃되기 학교를 진행하며 강의를 다시 들으니 좋은이웃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대화의 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간의 교류가 이어져서 통일이 된다는 것에 공감이 되어 우리가 먼저 좋은이웃을 이해해야 통일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 좋은이웃되기 활동 전에 이런 교육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강의를 통해 좋은이웃에 대한 나의 편견을 알게 되었고, 좋은이웃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작년에 들었던 건데 하면서 듣다보니 강의를 처음 듣는 것처럼 새롭고 참여한 다른 분들과 서로 생각을 나눠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2강]

- **일시** : 11. 19 (목)
- **장소** : 온라인
- **참가** : 이윤정, 이승우, 황명희, 최은숙, 이은정, 왕영재, 정신국, 김숙경, 김종호, 김미현 (10명)

2강 진행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많이 보다보니, 그들과 동등한 관계여야 이웃이 되고 그래야 남북한도 자연스럽게 이웃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실향민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아픔을 같이 공감하면서 출발하는 것이 통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실향민 이어서 보고 싶었고, 좋은이웃의 직설적인 화법에 공감이 갔습니다 .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물어봐라, 질문이 바뀌면 달라진다는 말을 새겨야겠습니다.

2007년부터 좋은이웃 활동을 시작한 활동가는, 어느새 좋은이웃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물어볼 수 있고 꾸준히하고 마음을 받아주는 관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3강도 기대됩니다.

노원지역 좋은이웃 추석 명절 방문

유미화 | 서울 노원 좋은벗들

- **일시** : 9. 24 (일)
- **대상** : 한소◯ 님, 고유네, 성우네, 효진이네
- **봉사** : 정순금, 김용안, 유미화, 정혜진

추석을 맞아 고유네, 성우네, 효진이네는 물론 대전에서 이사 오신 한소◯ 님 댁에 첫인사를 명절 방문으로 할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운 좋은이웃 분들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자주 뵐 수 없었던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밝게 맞아주는 아이와 부모님들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격없이 마주보고 서로가 대화할 수 있는 일상에, 마음이 따뜻해진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좋은이웃들께도 즐겁고 반가운 시간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소◯ 님 가정은 처음 방문했지만, 이미 대전에서 좋은벗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어 그런지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깜빡 잊고 사진을 찍지 못해 아쉽네요.

추석 명절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온라인 통일 축전에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김영숙 | 거제 좋은벗들

- **일시** : 9. 25 (금)
- **대상** : 25 가정
- **봉사** : 김영숙, 손경숙, 이옥자

좋은이웃 지역 모임의 총무님을 만나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통일 축전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니 아쉬운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알고는 많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이번 통축은 참여 인원이 많았으면 합니다.

광명 좋은이웃 추석 방문

서태원 | 광명 좋은벗들

- **일시** : 9. 24 ~ 29
- **대상** : 12가정 (대면 : 3가정 / 비대면 : 7가정 / 택배 : 2가정)
- **봉사** : (총10명) 김인화, 김현숙, 서방자, 서태원, 이상진, 오현, 이휘영, 조하연, 장효숙, 한영남

좋은이웃을 만나기 위해 '좋은이웃 바로알기'라는 3강의 교육을 하고, 교육 이수자 중심으로 좋은이웃에 더 다가가는 실천 활동으로 추석 방문을 하였습니다.

광명지역 활동가님들이 함께 추석 방문을 고민하며 좋은이웃 분들께 전화인사 드리고, 선물 정하고 오늘 선물까지 직접 전달 하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며 좋은이웃되기 사업의 첫 발을 시작 하였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소통하여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활동에 특히 이휘영님, 김현숙님이 앞으로 꾸준히 함께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 드립니다. 추가 봉사자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고맙고, 감사합니다.

통일축전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최미금 | 사하 좋은벗들

- **일시** : 9. 25 (금)
- **대상** : 25 가정
  (다대 7, 장림 1, 신평 1, 지사 16 가정)
- **봉사** : 최미금, 최임동

좋은이웃 25가정 중, 18 가정은 비대면으로 선물만 전달하고, 7 가정은 문앞에서 잠시나마 안부를 묻고 통일축전도 안내했습니다. 이번엔 온라인이지만 함께 좋은이웃되어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안내했습니다.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전화통화로 좋은벗들 관계자에게 감사함을 전하셨습니다.

한국에 오신 지 두달 된 24세 젊은 청년은 공무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중이며, 경기도에서 신평으로 이사온 젊은 부부가 이번 새롭게 이웃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명절인사로 간단히 전했습니다.

이번 명절엔 몸에 좋은 견과류를 준비해 한가구씩 가져갈 수 있도록 소포장하여 통일축전 홍보 프린트물, 좋은벗들 책자와 함께 동봉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전달가구는 총 30 가정로 기획했지만 부재중으로 25가구만 전달했고 명절 이후 10월 중에 다시 연락 드려 볼 예정입니다.

시흥 좋은이웃 추석 선물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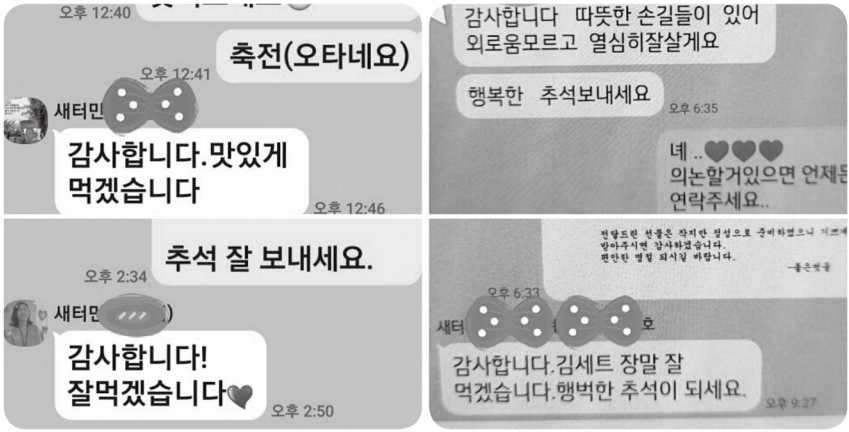
이정원 | 시흥 좋은벗들

- **일시** : 9. 20 ~ 10. 4
- **대상** : 20 가정
- **봉사** : 김병선, 신미순, 김명신, 윤선희, 지서연, 이정원

추석을 맞아 많은 활동가 분들이 틈틈이 애써주신 덕분에 20가정에 추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로 장시간 방문을 못하게 되면서 좀 어색해지고 아쉬운 마음들을 살짝 달래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함께 한 분들의 나누기도 올려봅니다.

-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외로운 삶을 사시는 분, 고통을 감내하며 일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다면 그 분들도 고마움 속에 서로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 직접 전달 못하고 경비실 무인 택배함에 보관하며 통화만 했는데 감사한 마음과 정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관심을 나누고 챙기는 가까운 이웃이 있구나 느끼는것 같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작은 소임 이었지만 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대면 금지라 방문선물을 택배나 문 앞 전달을 해야 해서 아쉬웠지만, 댁에 계신 분들은 잠깐씩이라도 얼굴 뵈며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연되신 분들 모두 잘 적응하셔서 한국에서 함께 통일을 맞이했으면 좋겠고 그 길에 미력하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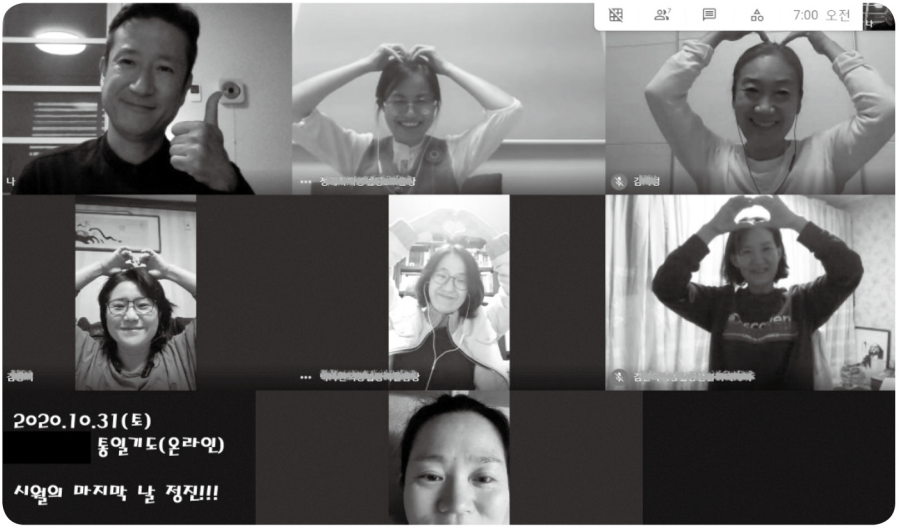


온라인 시대를 맞아, 이제는 통일 정진도 화상에서 만나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덕양지역 온라인 통일 정진

고영훈 | 고양 덕양 좋은벗들

- **일시** : 10. 31 (토)
- **장소** : 온라인
- **참석** : 고영훈, 김양기, 김미성, 김현옥, 정미자, 박나현, 석미옥 (7명)



참가 소감

- 출근하는 남편 아침 챙겨주느라 삼백배 절은 다 못했지만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온라인으로 하다보니 편리합니다. 먼저 가족들과 화합이되니 주변도 살피게됨을 알았습니다.
- 더 먼저 이해하고 화합하는 마음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되는 날이 오기를 두손모아 정진하겠습니다._()_
- 절제와 만족으로 계율을 삼고, 화해와 협력으로 정진을 삼으라는 발원문의 내용을 다시 새겨봅니다. 지금 이대로 만족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고 협력하는 한 주 보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도반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 일정이 있어 삼백배 마치고 끝까지 마무리 못했지만 발원문을 마음에 새기며 감동과 나를 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북쪽 하늘에 배고픔과 고통이 없어지길 오늘도 간절히 발원해봅니다. 도반들과 함께함이 늘 고맙습니다.
- 밤이 깊을 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듯이, 우리 남과북이 서로 소통할 날을 기다립니다. 화상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행복해하는구나하고 느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지역 온라인 통일 정진

조동열 | 안산 좋은벗들

- **일시** : 11. 22 (일)
- **장소** : 온라인
- **참석** : 월광법사님, 김수남, 박희준, 원호성, 이시일, 정재연, 김혜윤, 서형덕, 조동열 (9명)

참가 소감

- 빠른 시일 내에 이산 가족 상봉,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이라도 재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평화를 기원해 봅니다.
- 통일 정진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북한은 굶주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대북지원이 조속히 이뤄졌으면 싶습니다.
- 갈라져있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까워 마음이 아픕니다.
- 온라인으로 통일기도를 하며 통일도 온라인으로 하면 참 쉬울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일은 힘들더라도 죽기전에 남북왕래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우리 한반도 통일에 연관된 각 국가 정상들 생각하며 참회했고, 특히 전쟁에 목숨을 잃은 어린 영혼과 그의 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모든 이들을 생각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했습니다.

사천왕사지 통일정진 후기

서명주 | 울산 방어 좋은벗들

- **일시** : 11. 15 (일)
- **장소** : 사천왕사지
- **참석** : 총 10명
  - 방어 6명 : 김현진,서명주,안영미,김연숙,김종숙,윤정희
  - 울산 2명 : 김천호,정경례
  - 해운대 2명 : 전진수,강기옥

참가 소감

- 못 올뻔 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 좋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니 좋고 평화로운데 한순간 잘못되면 이 좋은 곳도 못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절로 평화가 간절해 집니다.
- 내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에 깨어있어야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명상을 할때 눈이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 사천왕사지 기도할 때 절을 하면서 잡념이 왔다갔다 하지만 잡념을 바로 볼 수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헥 우두커니 바로 볼 수 있어 좋습니다.
- 절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절을 하면서 어둠에서 밝아지니까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그것은 원래 있었는데 내가 못 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9월, 10월 신규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9. 1 – 2020. 10. 31)

000000002194 최상민
000000002199 배정애
000000002200 최다루한
000000002201 김선정
000000002202 전미선
000000002203 김윤정
000000002208 손영희
000000002209 이승헌
000000002210 양창호
000000002211 김남희
000000002212 김은영
000000002216 김숙희

2020년 9월에 후원해주신 좋은벗들입니다

[뉴스레터 후원]

김승환	류제표	성명	이선민	이지은	정선경	한승희
김현희	박경숙	오병찬	이은경	임성식	최성희	
도윤주	박성돈	이규빈	이중인	정금도	한병기	

[일반후원회원]

강득록	강희석	고정순	권이슬	김경실	김남흥	김민정	김성근	김순자
강미정	강희선	고지선	권재영	김경애	김대철	김백수	김성유	김승환
강보길	건축사사	고지안	권태윤	김경필	김도영	김병주	김성은	김승희
강성연	무소석원	곽도순	권호기	김경희	김동환	김봉준	김성진	김애경
강신준	고경옥	곽봉준	권효순	김귀남	김리원	김봉환	김성혜	김양지
강유진	고관규	구규리	금두희	김규혁	김 만	김상원	김세일	김영실
강재성	고광숙	구미경	기모란	김근식	김명희	김석범	김세호	김영진
강태경	고미숙	구언연	기세환	김금숙	김미경	김선경	김수녀	김용철
강태호	고병엽	구자걸	길래현	김기연	김미영	김선문	김수훈	김원달
강현기	고연화	권미향	길미숙	김나경	김미자	김선정	김숙녀	김원태
강호일	고은별	권윤정	김경분	김나영	김민정	김선희	김순영	김월금

김유연 김현숙 박경숙 박태정 손영상 양경희 유은희 이미나 이은경
김은경 김현우 박경훈 박태희 손은숙 양계화 유재성 이미란 이은영
김은란 김현지 박경희 박현숙 손재선 양연수 유정재 이복승 이응노
김은아 김현지 박근영 박형준 손정숙 양진주 윤상석 이봉자 이재문
김은자 김형숙 박금옥 박혜숙 송기형 양창호 윤석황 이상건 이재숙
김은희 김형익 박대식 박흥남 송민령 양혜영 윤여훈 이상광 이재하
김인식 김형희 박동주 박흥주 송민석 양희준 윤영실 이상만 이재형
김인희 김홍희 박민경 박희복 송봉섭 여경민 윤옥순 이상열 이정민
김재규 김화숙 박민식 배명자 송승원 여현주 윤은희 이상용 이정숙
김재영 김화영 박병진 배미령 송영규 오덕진 윤인숙 이상필 이정순
김재호 김희준 박봉진 배상훈 송우형 오명욱 윤재송 이상헌 이정우
김재훈 남미희 박분숙 배선희 송전용 오문택 윤태욱 이서현 이정임
김정숙 남연우 박상미 배준식 송태화 오미옥 윤혜경 이선민 이중인
김정옥 남연이 박상호 백강순 송필순 오미현 윤혜숙 이선자 이지은
김정윤 남예린 박선희 백남순 신강희 오민정 윤후영 이선호 이지현
김정임 노경미 박성준 백단심 신명순 오병찬 이갑성 이성미 이참한
김종복 노기선 박수미 백영일 신미란 오성일 이경례 이소현 이창수
김종순 노옥재 박수일 백용대 신봉월 오세준 이경숙 이순영 이창희
김종호 노은하 박순옥 백혜은 신순숙 오세철 이경향 이순자 이철호
김종희 노지희 박순천 법륜스님 신순임 오재민 이경화 이승용 이택회
김주옥 드림앤안 박승효 서석민 신현희 오정숙 이규빈 이승헌 이판오
김주환 양지점 박애란 서영란 신혜정 오지인 이근진 이시훈 이향애
김지영 류석현 박영주 서영홍 심연우 오진미 이금림 이연순 이현주
김지은 류제표 박윤호 서예랑 심지윤 오진환 이기남 이연순 이혜경
김진권 문귀숙 박은아 서주연 심지현 오택 이길엽 이 영 이혜원
김진민 문기호 박인경 서 희 심진희 오환석 이길자 이영미 이호준
김찬우 문보빈 박재현 석선정 심흥아 용채명 이덕기 이영미 이화경
김창민 문성해 박정수 설민영 안도연 우복덕 이덕아 이영숙 이화승
김창수 문예진 박정옥 설정경 안봉진 우서정 이동우 이영애 이효산
김창진 문은영 박주영 성광지 안상호 우정석 이두희 이영익 임도영
김학련 문지영 박주하 성향아 안선영 원주빈 이두희 이영휘 임미순
김해영 문태운 박준경 소희주 안순희 원춘경 이맘껏날아 이오영 임수신
김 향 민영희 박진현 손경연 안재성 유수스님 이명숙 이원석 임순옥
김향숙 민춘희 박진희 손규만 안재호 유옥경 이명순 이원제 임윤석
김 혁 박경석 박철웅 손대성 안정애 유우인 이명희 이유철 임 철

임혜진	정구락	정영미	조연정	진광자	최영자	한명희	호수경
장경원	정근혜	정영수	조영구	차영석	최원석	한미경	홍미경
장도연	정기찬	정용구	조영희	채수연	최윤희	한병기	홍지예
장미애	정다영	정월향	조욱성	채희주	최장희	한상훈	홍진숙
장성심	정란희	정유진	조정희	천성필	최정연	한승희	황은단
장세만	정명화	정윤화	조해숙	최경민	최정희	한의규	황인조
장영주	정미숙	정재필	조 협	최광수	최지원	한지연	황진희
장정화	정보성	정점순	조혜정	최기진	최진연	한태숙	황화숙
장창호	정상목	정정관	조희옥	최다루한	최현서	함정호	
장효숙	정선경	정정영	주동규	최동호	최현숙	허미혜	
전귀재	정선영	정정희	주선우	최민서	하기완	허영숙	
전병찬	정수희	정혜윤	지명자	최병숙	하선아	허은희	
전우성	정순자	조경희	지민규	최복희	하연숙	허 준	
전윤숙	정순진	조세분	지상금	최상민	하지유	허진도	
전윤숙	정안수	조수진	지은아	최선희	한규매	현순희	
정경숙	정안숙	조시현	지은정	최수지	한대식	현정련	
정경희	정언모	박해광	지현숙	최영일	한동필	현효용	

[좋은이웃되기]

강득록	구영희	김경현	김민정	김승환	김지훈	김혜정	민춘희	박영덕
강문헌	구자걸	김국환	김민정	김영숙	김춘희	남연이	민현주	박영아
강보길	구현오	김규희	김봉환	김영순	김태욱	노경미	박경숙	박윤정
강성비	권교중	김나형	김분주	김영자	김태희	노혜원	박남주	박은아
강은숙	권선옥	김남선	김선경	김영진	김필선	노희산	박명복	박인환
강회배	권지웅	김도연	김선문	김윤범	김한수	류민경	박선경	박재범
고성임	금동숙	김동윤	김선정	김의경	김한영	류제표	(법성스님)	박정숙
고장준	금두희	김명수	김성열	김이루다	김향숙	문경자	박성돈	박준경
고정순	길래현	김명신	김수진	김인식	김현정	문보빈	박세미	박태희
고현정	길현배	김미경	김수현	김정림	김현주	문성해	박수영	박현실
곽도순	김가빈	김민범	김순정	김정실	김현지	문예진	박순우	박형준
구영모	김경선	김민정	김승호	김지성	김혜영	문정희	박순화	박흥주

방미영 양미진 이동규 이윤정 이진겸 장희정 조욱성 최영화 홍경희
배미령 양지연 이동우 이 은 이창희 전보명 조은서 최원석 홍순연
배정기 양홍심 이만영 이은경 이철호 전외자 조재익 최은숙 홍옥희
배정애 엄지선 이명우 이인숙 이필영 전우성 조주호 최인미 홍효정
백강순 오병찬 이미경 이일현 이향애 전은수 조희옥 최한구 황경석
백동화 오성일 이미애 이재관 이화경 전정숙 주정란 최현미 황수진
변종임 오윤주 이방숙 이점순 이희자 전형지 지명자 최현숙 황승오
서성희 용채명 이복순 이정남 인미화 전혜준 지영우 최현이 황연주
서양숙 위라미 이봉자 이정남 임경란 전혜진 천윤교 하연숙 황지영
설은자 유남욱 이상한 이정민 임수신 정금도 천인근 하재남 황효숙
성혜정 유두진 이상헌 이정순 임은숙 정성호 최경민 한건우 limeihua
송미해 유정재 이서영 이정우 임지영 정성희 최경임 한병기 MATSUHASHI
송봉섭 윤득기 이서현 이정원 임현식 정순자 최금자 한상윤 SACHIYO
송선희 윤여동 이선민 이정은 임희경 정원자 최다루한 한승희
송승원 윤정호 이수민 이종승 장말자 정은영 최동숙 한운호
송태화 이경선 이 영 이종필 장미영 정지안 최복희 한정현
신보영 이규빈 이영임 이중인 장수빈 정지윤 최서우 한지연
심지윤 이기홍 이외숙 이지은 장시은 조경희 최성희 한혜자
안선영 이남운 이원우 이지인 장재운 조남국 최순희 함정호
안소연 이다혜 이유철 이지현 장지만 조세분 최양님 허종보

[평화지킴이]

강경희 강정숙 구자걸 길미숙 김나현 김명숙 김민정 김선정 김영은
강득록 강혜인 권두한 길현배 김남심 김미경 김민정 김선주 김영진
강문헌 고광숙 권순범 김갑우 김대식 김미란 김민지 김수안 김용석
강보길 고란숙 권순환 김경란 김대익 김미옥 김보경 김수영 김용표
강복웅 고정순 권태억 김국희 김덕운 김미정 김봉환 김수현 김용현
강옥선 곽선희 권혜진 김기성 김동식 김미현 김선경 김승환 김은미
강은주 곽성일 금두희 김기홍 김동욱 김민기 김선문 김양숙 김은정
강인숙 구미선 길래현 김나경 김만태 김민정 김선옥 김영숙 김인식

김인영 문예진 박현주 송병순 오훈철 이선민 이태희 정희숙 최화심
김재호 문현숙 박현주 송봉섭 용채명 이숙형 이필영 조경희 추순옥
김정길 민춘희 박형준 송선희 우순점 이순길 이향애 조세분 하연숙
김정원 박경숙 박혜숙 송승원 우영옥 이순모 이혜림 조수월 한병기
김정칠 박경옥 박흥주 송은화 유나경 이영희 이화경 조수진 한승희
김종애 박남주 반일효 송태화 유정재 이오영 이희자 조욱성 한지연
김종진 박미경 방미경 신금년 유창연 이유진 임수신 조유진 한지혜
김종태 박민주 방미영 신미경 유현복 이유철 임지영 조은미 함정호
김중광 박성돈 방찬희 신미혜 유현정 이윤정 임채남 조정미 허종보
김지영 박성미 배미령 신민경 윤명선 이은경 임현식 조정민 허 준
김창우 박성수 배정애 신상룡 윤영희 이응노 장말자 조희옥 현희련
김춘화 박소연 배준식 심지윤 윤정호 이일현 장 미 주문돈 홍상수
김판신 박순화 백강순 안순주 이경수 이재관 장수빈 지명자 홍진숙
김해영 박영아 변애란 안영민 이경철 이재호 장용창 지현우 황경석
김향숙 박윤정 변채호 안원봉 이경희 이점순 장재운 채귀훈 황광철
김향희 박은아 서동찬 안인옥 이경희 이정민 장희정 채지영 황미경
김형규 박인경 서석민 안재성 이규빈 이정민 전병철 천승영 황순옥
김형준 박인숙 서수정 양승용 이동건 이정순 전부연 최경민 황유진
김혜정 박재범 서초통일 양은희 이동우 이정우 전성일 최다루한 MATSUHASHI
김 홍 박정임 불전함 여인욱 이두희 이정원 전영은 최복희 SACHIYO
김효심 박정태 석은미 예병우 이미경 이정희 전우성 최수화
김희경 박종보 설은자 예상희 이봉자 이준석 전지호 최순환
남연이 박종훈 성경직 예찬순 이상건 이중인 전형지 최영선
노경미 박주경 성명 오병찬 이상자 이지은 정경순 최영일
노현승 박준경 성창화 오성일 이상필 이지현 정귀임 최영화
대산항도선 박태정 세 웅 오세풍 이상헌 이진영 정금도 최원석
사조성민 박태희 손동석 오윤주 이새롭 이창희 정영숙 최인규
류제표 박하나 손상우 오은경 이서영 이철호 정은영 최정희
문보빈 박현실 송민선 오진환 이서현 이춘화 정혜선 최현숙

2020년 10월에 후원해주신 좋은벗들입니다

[뉴스레터 후원]

김현희 류제표 성명 이규빈 이은경 이지은 정금도 최성희 한승희
도윤주 박경숙 오병찬 이선민 이중인 임성식 정선경 한병기

[일반후원회원]

강득록 고지안 김귀남 김상원 김영진 김종순 김형희 문지영 박순천
강미정 곽도순 김규혁 김석범 김용철 김종호 김홍희 문태운 박승효
강보길 곽봉준 김근식 김선경 김원달 김종희 김화숙 민영희 박애란
강성연 구규리 김금숙 김선문 김원태 김주옥 김화영 민춘희 박영주
강신준 구미경 김기연 김선정 김월금 김주환 김희준 박경석 박윤호
강유진 구언연 김나경 김선희 김유연 김지영 남미희 박경숙 박은아
강재성 구자걸 김나영 김성근 김윤정 김지은 남연우 박경훈 박인경
강태경 권미향 김남흥 김성유 김은경 김진권 남연이 박경희 박재현
강태호 권윤정 김남희 김성은 김은란 김진민 남예린 박근영 박정수
강현기 권이슬 김대철 김성진 김은아 김찬우 노경미 박금옥 박정옥
강호일 권재영 김도영 김성혜 김은영 김창민 노기선 박대식 박주영
강희석 권태윤 김동환 김세일 김은자 김창수 노옥재 박동주 박주영
강희선 권호기 김리원 김세호 김은희 김창진 노은하 박민경 박주하
건축사사 권효순 김 만 김수녀 김인식 김학련 노지희 박민식 박준경
무소석원 금두희 김명희 김수훈 김인희 김해영 드림앤안 박병진 박진현
고경옥 기모란 김미경 김숙녀 김재규 김 향 양지점 박봉진 박진희
고관규 기세환 김미영 김숙희 김재영 김향숙 류석현 박분숙 박철웅
고광숙 길래현 김미자 김순영 김재호 김 혁 류제표 박상미 박태정
고미숙 길미숙 김민정 김순자 김재훈 김현숙 문귀숙 박상호 박태희
고병엽 김경분 김민정 김승환 김정숙 김현우 문기호 박선희 박현숙
고연화 김경실 김백수 김승희 김정옥 김현지 문보빈 박성준 박형준
고은별 김경애 김병주 김애경 김정윤 김현지 문성해 박수미 박혜숙
고정순 김경필 김봉준 김양지 김정임 김형숙 문예진 박수일 박흥남
고지선 김경희 김봉환 김영실 김종복 김형익 문은영 박순옥 박흥주

박희복 송민석 여경민 윤여훈 이상건 이재하 장성심 정월향 채수연
배명자 송봉섭 여현주 윤영실 이상광 이재형 장세만 정유진 채영운
배미령 송승원 오덕진 윤옥순 이상만 이정민 장영주 정윤화 채희주
배상훈 송영규 오문택 윤은희 이상열 이정숙 장정화 정점순 천성필
배선희 송우형 오미옥 윤인숙 이상용 이정순 장창호 정정관 최경민
배준식 송전용 오미현 윤재송 이상필 이정우 전귀재 정정영 최광수
백강순 송태화 오민정 윤태순 이상헌 이정임 전미선 정정원 최기진
백남순 송필순 오병찬 윤태욱 이서현 이중인 전병찬 정정희 최다루한
백단심 신강희 오성일 윤혜경 이선민 이지은 전우성 정혜선 최동호
백영일 신명순 오세준 윤혜숙 이선자 이지현 전윤숙 정혜윤 최민서
백용대 신미란 오세철 윤후영 이선호 이참한 전윤숙 조경희 최병숙
백혜은 신봉월 오재민 이갑성 이성미 이창수 정경숙 조금연 최복희
법륜스님 신순숙 오정숙 이경례 이소현 이창희 정경희 조세분 최상민
서석민 신순임 오지인 이경숙 이순영 이철호 정구락 조수진 최선희
서영란 신현희 오진미 이경향 이순자 이택회 정근혜 조시현 최수지
서영홍 신혜정 오진환 이경화 이승용 이판오 정기찬 박해광 최영일
서예랑 심연우 오 택 이규빈 이시훈 이향애 정다영 조연정 최영자
서주연 심지윤 오환석 이근진 이연순 이현주 정란희 조영구 최원석
서희 심지현 용채명 이금림 이연순 이혜경 정명화 조영희 최윤희
석선정 심진희 우복덕 이기남 이 영 이혜원 정미숙 조욱성 최장희
설민영 심흥아 우서정 이길엽 이영미 이호준 정보성 조정희 최정연
설정경 안도연 우정석 이길자 이영미 이화경 정상목 조해숙 최정희
성광지 안봉진 원주빈 이덕기 이영숙 이화승 정선경 조협 최지원
성향아 안상호 원춘경 이덕아 이영애 이효산 정선영 조혜정 최진연
소희주 안선영 유경희 이동우 이영익 이희자 정성아 조희옥 최현서
손경연 안순희 유수스님 이두희 이영휘 임도영 정수희 주동규 최현숙
손규만 안재성 유옥경 이두희 이오영 임미순 정순자 주선우 하기완
손대성 안재호 유우인 이맘껏날아 이원석 임수신 정순진 지명자 하선아
손영상 안정애 유윤식 이명숙 이원제 임순옥 정안수 지민규 하연숙
손영희 양경희 유은희 이명순 이유철 임윤석 정안숙 지상금 하지유
손은숙 양계화 유재성 이명희 이은경 임철 정언모 지은아 한규매
손재선 양연수 유정재 이미나 이은영 임혜진 정연아 지은정 한대식
손정숙 양창호 윤상석 이미란 이응노 장경원 정영미 지현숙 한동필
송기형 양혜영 윤석황 이복승 이재문 장도연 정영수 진광자 한명희
송민령 양희준 윤시명 이봉자 이재숙 장미애 정용구 차영석 한미경

한병기 한승희 한태숙 허영숙 허진도 현효용 홍지예 황은단 황화숙
한상훈 한의규 함정호 허은희 현순희 호수경 홍진숙 황인조
한승희 한지연 허미혜 허 준 현정련 홍미경 황수남 황진희

[좋은이웃되기]

강득록 김국환 김영진 노희산 박정숙 신보영 이동우 이재관 임은숙
강문헌 김규희 김윤범 류민경 박준경 심지윤 이만영 이점순 임지영
강보길 김나형 김은영 류제표 박태희 안선영 이명우 이정남 임현식
강성비 김남선 김의경 문경자 박현실 안소연 이미경 이정남 임희경
강은숙 김도연 김이루다 문보빈 박형준 양미진 이미애 이정민 장말자
강회배 김동윤 김인식 문성해 박흥주 양지연 이방숙 이정순 장미영
고성임 김명수 김정림 문예진 방미영 양홍심 이복순 이정우 장수빈
고장준 김명신 김정실 문정희 배미령 엄지선 이봉자 이정원 장시은
고정순 김미경 김지성 민춘희 배정기 오병찬 이상한 이정은 장재운
고현정 김민범 김지훈 민현주 배정애 오성일 이상헌 이종승 장지만
곽도순 김민정 김춘희 박경숙 백강순 오윤주 이서영 이종필 장희정
구영모 김민정 김태욱 박남주 백동화 용채명 이서현 이중인 전보명
구영희 김봉환 김태희 박명복 변종임 위라미 이선민 이지은 전외자
구자걸 김분주 김필선 박선경 서성희 유남욱 이성애 이지인 전우성
구현오 김선경 김한수 (법성스님) 서양숙 유두진 이수민 이지현 전은수
권교중 김선문 김한영 박세미 설은자 유정재 이 영 이진겸 전정숙
권선옥 김선정 김향숙 박수영 성명 윤득기 이영임 이창희 전형지
권지웅 김성열 김현정 박순우 성혜정 윤여동 이외숙 이철호 전혜준
금동숙 김수진 김현주 박순화 손영희 윤정호 이원우 이필영 전혜진
금두희 김수현 김현지 박영덕 손익련 이경선 이유철 이향애 정금도
길래현 김순정 김혜영 박영아 송미해 이규빈 이윤정 이화경 정성호
길현배 김승호 김혜정 박윤정 송봉섭 이기홍 이 은 이희자 정성희
김가빈 김승환 남연이 박은아 송선희 이남운 이은경 인미화 정순자
김경선 김영숙 노경미 박인환 송승원 이다혜 이인숙 임경란 정원자
김경현 김영순 노혜원 박재범 송태화 이동규 이일현 임수신 정은영

정지안	조은서	천인근	최서우	최인미	한건우	함정호	황수진	SACHIYO
정지윤	조재익	최경민	최성희	최한구	한병기	허종보	황승오	
조경희	조주호	최경임	최순희	최현미	한상윤	홍경희	황연주	
조남국	조희옥	최금자	최양님	최현숙	한승희	홍순연	황지영	
조세분	주정란	최다루한	최영화	최현이	한운호	홍옥희	황효숙	
조순봉	지명자	최동숙	최원석	하연숙	한정현	홍효정	limeihua	
조욱성	지영우	최복희	최은숙	하재남	한지연	황경석	MATSUHASHI	

[평화지킴이]

강경희	길미숙	김미정	김영진	김해영	박경옥	박태희	서초통일	신상룡
강득록	길현배	김미현	김용석	김향숙	박남주	박하나	불전함	심지윤
강문헌	김갑우	김민정	김용표	김향희	박미경	박현실	석은미	안순주
강보길	김경란	김민정	김용현	김형규	박민주	박현주	설은자	안영민
강복웅	김국희	김민정	김은미	김형준	박성미	박현주	성경직	안원봉
강옥선	김기성	김민지	김은영	김혜정	박성수	박형준	성창화	안인옥
강은주	김기홍	김반야솔	김은정	김효심	박소연	박혜숙	세 웅	안재성
강인숙	김나경	김보경	김인식	김희경	박순화	박흥주	손동석	양승용
강정숙	김나현	김봉환	김인영	남연이	박영아	반일효	손상우	양은희
강혜인	김남심	김선경	김재호	노경미	박윤정	방미경	손영희	여인욱
고광숙	김대식	김선문	김정길	노현승	박은아	방미영	송민선	예병우
고정순	김대익	김선옥	김정원	대산항도선	박인경	방찬희	송병순	예상희
곽성일	김덕운	김선정	김정칠	사조성민	박인숙	배미령	송봉섭	예찬순
구자걸	김동식	김선주	김종애	류제표	박재범	배정애	송선희	오병찬
권두한	김동욱	김수안	김종진	문보빈	박정임	배준식	송승원	오성일
권순범	김동원	김수영	김종태	문영일	박정태	백강순	송은화	오세풍
권순환	김만태	김수현	김중광	문예진	박종보	변애란	송태화	오윤주
권태억	김명숙	김승환	김지영	문현숙	박종훈	변채호	신금년	오은경
권혜진	김미경	김양숙	김창우	민춘희	박주경	서동찬	신미경	오진환
금두희	김미란	김영숙	김춘화	박경숙	박준경	서석민	신미혜	오훈철
길래현	김미옥	김영은	김판신	박경옥	박태정	서수정	신민경	용채명

우순점
우영옥
유나경
유정재
유창연
유현복
유현정
윤명선
윤영희
윤정호
이경수
이경철
이경희
이경희
이규빈
이동건
이동우
이두희
이미경
이봉자
이상건
이상자
이상필
이상헌
이새롭
이서영
이서현
이선민
이숙형
이순길
이순모
이영희
이오영
이유진
이유철
이윤정
이은경
이응노
이일현
이재관
이재호
이점순
이정민
이정민
이정순
이정우
이정원
이정희
이준석
이중인
이지은
이지현
이진영
이창희
이철호
이춘화
이태희
이필영
이향애
이혜림
이화경
이희자
임수신
임지영
임채남
임현식
장말자
장 미
장수빈
장용창
장재운
장희정
전병철
전부연
전성일
전영은
전우성
전지호
전형지
정경순
정귀임
정금도
정영숙
정은영
정희숙
조경희
조세분
조수월
조수진
조욱성
조유진
조은미
조정미
조정민
조희옥
주문돈
지명자
지현우
채귀훈
채지영
천승영
최경민
최다루한
최복희
최수화
최순환
최영선
최영일
최영화
최원석
최인규
최정희
최현숙
최화심
추순옥
하연숙
한병기
한승희
한지연
한지혜
함정호
허종보
허 준
현희련
홍상수
홍진숙
황경석
황광철
황미경
황복현
황순옥
MATSUHASHI
SACHIYO

(사)좋은벗들 가족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사)좋은벗들이 만들어가는 통일세상에 소중한 씨앗을 뿌려주세요.
씨앗 하나하나가 모여 평화롭고 갈등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갑니다.

후원회비는 이렇게 내세요

- CMS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S를 이용하면 자동이체처럼 간편하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CMA 신청은 좋은벗들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후원신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식지 뒷면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사)좋은벗들에 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세요.

- 자동이체를 이용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금주 : 사단법인 좋은벗들]
  - 국민은행 086-25-0021-251
  - 농 협 100080-51-038056

- 후원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TEL. 02-587-8996 / FAX. 02-581-4071(좋은벗들)

10월 11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통일축전에서
천안 지역의 좋은이웃의 흥겨운 무대가 장기자랑 1위로 뽑혔습니다.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모두 즐겁고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